

3. ()과 로마의 성장

1)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이후 ()와 결전



2) 총 3차례에 걸친 전쟁의 결과 로마가 ()를 물리치고 서지중해의 패권 장악

3) ()전쟁 이후 로마의 변화

① 로마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고, 노예의 숫자가 증가

⇒ 귀족들이 노예 노동력을 이용하여 대토지를 경작하는 ()이 확대

로마 인은 전쟁을 통해 이탈리아의 여러 민족을 정복하였다.…… 유력자들이 정복한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세월이 흘러 그것을 잃게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지자, 그 주변이나 가난한 자의 땅을 감언이설로 사들이거나 폭력으로 빼앗아, 그 넓이가 마치 대평원과도 같았다. 또한, 그들은 노예를 사들여 대농장에서 일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힘 있는 자는 더욱 부유해졌고 노예도 나라 곳곳에서 늘어난 데 반해, 이탈리아 인은 빈곤과 과세 및 군역에 시달려 인구가 줄어들었다.

- 아피아노스, 「로마사」 -

② 전쟁에 장기적으로 참전했던 자영농 계층의 몰락, 자영농은 실업자가 되어 로마로 몰려들게 됨

4. ()형제의 개혁과 실패

1) 티베리우스 ()의 개혁

① 귀족의 대토지 확대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② ()에 따라 귀족의 대토지 소유 제한()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라로 정한다. 이 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라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라를 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1000유게라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③ 원로원의 반대로 티베리우스 ()가 살해

2) 가이우스 ()의 개혁

① 티베리우스 ()가 살해당하자 그의 동생이 개혁 추진

② ()제정: 속주의 곡물을 싼 값에 시민들에게 판매할 것을 주장

기원전 123년에 호민관으로 선출된 동생 가이우스는 더 광범한 사회층의 지지를 획득하고 원로원을 고립시킴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가난한 시민에게 사장가격보다 싸게 곡물을 판매하고, 카르타고의 옛 영토에 식민지를 건설하여 무산시민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민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③ 원로원의 반대로 가이우스 ()가 살해

5. 이후 로마 내에서 군인정치가들이 득세하고, 동맹시의 반란, 노예들의 반란으로 로마가 혼란

→ 반란군의 이동 경로

무티나, 로마, 카푸아, 베수비오산, 사칠리아, 테가움

이 사건은 겐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약 70명의 겐투사들과 함께 카푸아의 겐투사 양성소를 탈출하여 일으킨 반란이다. 이들은 베수비오산에서 세력을 키운 후, 북부와 남부 지역을 오가며 로마군을 대파하여 로마를 혼란에 빠뜨렸으나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 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6. 제1차, 제2차()

1) 1차 삼두정치

- ① 인물 : (), (), ()
- ② 처음에는 3명의 인물이 서로 연합하여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였으나 이들끼리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서로 다투다가 ()가 최종적으로 권력을 장악하면서 독점적 권력을 장악
⇒ 공화정의 붕괴를 우려한 공화파들에 의해 ()가 살해당함

2) 2차 삼두정치

- ① 인물 : 레피두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 ②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양대권력으로 권력이 배분되는 가운데 안토니우스가 ()와 연합하여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우스 왕조에 귀속
- ③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로마의 적으로 규정하고 안토니우스와 ()의 연합부대를 격파
⇒ ()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로마의 권력 장악